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3.(화) 12:00
(지 면) 2026. 11. 4.(수) 조간

디지털네이션스 · OECD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정부의 미래 논의 선도

- 11월 4일(수)~10일(화) 에스토니아·프랑스에 김민재 차관 단장 정부 대표단 파견
- 11월 5일 에스토니아 탈린서 '에이전트형 정부' 주제로 공공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신원 협력 논의
- 브라질 신규 가입 계기로 중남미 협력 확대… OECD 가입 30주년 맞춰 E-리더스 회의 기조연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고 「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장관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리더스*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네이션스(Digital Nations): 한국, 영국, 에스토니아 등 디지털 선도국들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4년에 발족한 국제협의체

* OECD 회원국의 디지털정부·인공지능(AI) 담당 고위급 공무원 협의체

우리나라는 디지털네이션스 창립 회원국으로서 디지털정부와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올해 장관회의는 에스토니아가 의장국을 맡아 11월 5일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에이전트형 정부: 기대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Agentic State: Going beyond Hype)'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김민재 차관은 회원국의 장관 및 고위급 관계자들과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혁신 및 책임성 확보 ▲디지털 주권

강화 ▲디지털 신원 체계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해 우리나라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I):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인공지능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중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브라질의 신규 회원국 가입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 협력이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디지털경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브라질과 공공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정부 분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 대표단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E-리더스 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공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OECD와의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대표단은 OECD 공공 거버넌스 담당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도 'SEA(동남아시아) AI 협력 네트워크*' 의장직 수행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정책 협력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OECD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인정받은 디지털정부·인공지능 선도국"이라며,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정부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정책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협력과	책임자	과 장	최혜선 (044-205-2781)
		담당자	사무관	최태라 (044-205-278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